

오전9시,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인도자
※ 예배기원 인도자
※ 경배찬송 42장(거룩한 주님께)..... 다 같이
※ 교독문 9(시편 15편)..... 다 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92장(위에 계신 나의 친구)..... 다 같이
예배기도 1부 노재의집사 2부 박홍만장로
응답송 찬양대
이달의찬양 “살아계신 주”.....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활의 소망으로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 복음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 이 나라와 민족위에 참 평화를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3:5-9 정숙자권사
찬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성숙한 믿음으로의 성장” 최세열목사
기도 설교자
◆응답하는 예배◆	
찬송 352장(십자가 군병들아) 다 같이
봉헌 (8 구역)..... 다 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은이
※ 찬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 축도 담임목사
※ 축복송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시백기도회(월-금)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찬양 / 다함께	기도 / 류종란권사	기도 / 한마음기도	기도 / 한마음기도	오후 8시	오후 8시
본문 / 베드로전서1:20	본문 / 베드로전서1:20	본문 / 빌립보1:12-21	본문 / 빌립보1:12-21	합심기도, 중보기도,	개인지도
말씀 / 최세열목사	말씀 / 최세열목사	말씀 / 최세열목사	말씀 / 최세열목사	금요기도회	
교회를 경험하는 삶	31과 “복음의 발견”	축도 / 최세열목사	“위기를 극복하십시오”		
축도 / 최세열목사			주기도문 / 다같이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다음주기도	1부	김선주집사
		오복실 안복선 노대성		2부	마르다회
	헌금위원	4월 심문자 김종천 홍강의 인민숙	다음주성경봉독	1부	말은이
		5월 박기환 정선례 김귀례 송영임		2부	마르다회
식당봉사	금주 남신도회	다음주 마르다A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김인순권사	
헌신찬양	금주	8 구역	다음주	마르다회	

“성숙한 믿음으로의 성장” / 고린도전서 3:5-9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힘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빌3:12).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성숙의 표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엡4:13).

1. 서로에 대하여 동역자라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했음을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동역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시고, 다른 성도들과도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4:1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입어야 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동역은 아볼로같이 성숙한 동역자뿐 아니라 육신에 속한 미숙한 자들도 함께 해야 함을 말합니다. 본문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비록 미숙한 모습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밭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에 그들과도 동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역할 줄 아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위에 삶을 세워가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11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골3:17) 그리고 그 기초위에 우리는 가치 있는 것으로 신앙의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위에 인생과 신앙의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짓든지 그 삶이 불로써 평가받을 때가옵니다. 그 평가의 시간에 타지 않고 남는다면 상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같은 바울의 비유는 신앙생활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고귀해야 하며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3.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의미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16,17절)이라는 말로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인하여 죽은 것들을 살리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힘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 곧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때에만 기쁨이 충만한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솟아나는 웅덩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웅덩샘 신앙이란 화려하지 않지만 생명수 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끝이 교제하면서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화희의 샘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무엇 때문에’ 느끼는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날찌라도’ 은혜를 느끼며 세상을 향해 은혜를 끼치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애아나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신앙주제4:고난과 부활)
 4/8 제2과 십자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요한복음3장 14-16절)

말씀 살피기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신이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말씀묵상
 미국의 캔자스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매츠키 박사는 십자가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장애를 가져온다. 숨을 내릴 수가 없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는 몸을 위로 치켜세우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하므로 그 고통은 가중된다.”

첫째.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이 바라본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로마 병사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유대 종교지도자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본 여인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본 제자들,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달랐지만 아픔과 고통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하면 고통을 생각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십니까?", "지금 내 모습,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실 리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떡하든지 나를 사랑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100%믿어야합니다.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역경을 이길 뿐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 '찬송가88장 가사'를 세 번 정도 읽고 서로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2.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경험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에 안수집사 모임이 당회실에서 있습니다(오후1시).
2. 다음 주일은 평신도 참여예배로 드립니다. 마르다회는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든솔 선교활동이 이번 주 토요일(14일)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8시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4월의 교회행사

1. 평신도참여예배 : 4월 15일 / 마르다회
2. 전교인복수련회 : 4월 21일(토) 오전9시 / 천리포수목원
3. 해든솔선교활동 : 4월 14일(토) 오전8시30분
4. 경기노회 제181회 정기노회 : 4.22-23 / 둔전교회

향기로온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정연태 신민선 이현옥 지극남 박홍만 정정희 김선주 원혜경 김숙희 지대근 함경숙
- 감사헌금 : 김선주 원혜경 김순임 김지환 (생일) 최세열 (일천번제) 이병각 인민숙 김동현 김지환 한진현 한재현 (금식) 최세열 조성순 김순임 김애자
- 건축헌금 : 박홍만 정정희 박요한 김선주 원혜경 함경숙 박상귀 공영순 이유자 루디아회
- 비전씨앗 : 배영인 김하윤 안채빈 나인원 나인애 임동용
- 부활감사 : 노유민 김동현 김애자 강항구 류종란 강승례 이병각 인민숙 서영자 최승만 심복례 김홍영 황은상 박지영 김인순 안드레 김옥길 여순애 강진숙 박상귀 공영순 박지우 박영락 김하영 오복실 배경민 박기환 한옥자 한상호 차소라 한재현 한진현 김용건 김종천 이영선 임병호 김경희 배순관 인희선 김혜경 김양순 서순자 박칙국 이영란 박광섭 방옥남 주종일 김기희 김병국 김정화 박연우 김지환 김희선 김춘자 임정현 천사라 임현환 김은유 강다미 강다원 강승리 양희임 강신근 한은미 박세일 한미경 양석임 오종택 오승빈 정순임 박홍만 정정희 김상예 이종봉 이춘호 심재수 이종열 박현순 이석영 손주완 박윤희 손지아 이유자 이문순 지효린 김정민 홍경호 김선주 원혜경 김예진 김승호 허 웅 김순임 송영임 박홍만 정정희 박요한 안해숙 윤승호 최경선 김범진 김귀래 김한순 박성진 김윤지 심문자 홍강의 김성희 정숙자 안채빈 윤종원 정연태 최세열 조성순 최정현 최지현 함경숙 노대성 정재영 노하진 선우명환 장영분 김영란B 공원배 무명 6

예배시간안내

구분	요일	시간	장소	구분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9시,11시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찬양예배	주일	오후 2시	본당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년부	주일	오후 1:00	도서실

고통은 성장 자극제 입니다

정원사가 장미에게 빛과 물을 주지 않으면 장미는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열린 보면 죽어가는 것 같다. 그러나 잎이 다 떨어졌을 때 더 부드러운 잎을 내기 시작하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과학자가 어떤 동물 앞에 장애물을 놓았다가 갑자기 좋아하는 선물도 놓았다. 그 결과 과학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사는 동물은 그 기능이 더 잘 개발되고 더 활발할 뿐 아니라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이었다.

음악가 토스카니니는 19세 때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했다. 악보가 잘 보이지 않기에 첼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악보를 외워야 했다. 어느 날 지휘자가 몸이 아파 결석을 했다. 악보 전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젊은 토스카니니밖에 없었다. 토스카니니는 어쩔 수 없이 지휘를 맡게 되었다. 그는 악보를 보지도 않고 지휘했다. 그 후 토스카니니는 계속 지휘했고 청중은 계속 박수갈채를 보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은 고통을 통해 더 잘 자란다.

성장함으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멋지고 긴 수염을 가진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당시는 수염을 기르는 것이 그다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수염을 몹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것과 같은 수염이 나에게도 자라나기를 비밀리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8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내가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조니야, 왜 아무 것도 먹지를 않니?"

"안돼요, 엄마 전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지?"

"비밀이에요."

내가 금식의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수염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수염은 금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났습니다. 나는 성장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던 것이 단지 우리가 성장함으로써 해결되는 수가 흔히 있습니다.

원전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한다”

2018-14호 2018.4.8.

부활절 둘째 주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단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모두가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이 세상 한 가운데서 생명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먼저 한 알의 용서의 씨앗이 되어
우리 가운데 떨어지시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알의 용서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갈등과 분노와 반목의 세상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용서의 열매가 맺히지게 하옵소서.

또한 섬김의 씨앗이 되어
무릎으로 온 세상을 섬기신 주님의 모범을 따라,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 어떤 이득을 탐하지 않으면서
무릎이 헤어지도록 그리고 손과 발이 닳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가슴에 담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매일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언제인가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얻게 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씨앗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답임특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담당:정연태특사 지휘:손효모 반주:김은영 최지현